



오타니 홈런포 도쿄돔 흔들다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의 오타니 쇼헤이가 15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요미우리 자이언츠와의 스프링 트레이닝 야구 경기 3회 투런 홈런을 치고 베이스를 들고 있다. AP=연합뉴스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를 대표하는 슈퍼스타 오타니 쇼헤이(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의 힘찬 스윙과 총알 같은 타구에 일본 도쿄돔은 열광의 도가니가 됐다.

오타니는 15일 일본 도쿄의 도쿄돔에서 열린 요미우리 자이언츠와 평가전에서 일본 국가대표 투수인 도고 쇼세이(요미우리)를 상대로 2점 홈런을 터뜨렸다.

오타니가 요미우리와의 평가전에서 홈런을 쳤을 때, 4만2064명의 관중이 찾은 도쿄돔에 엄청난 함성이 쏟아졌다.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다저스는 15일 일본 도쿄돔에서 열린 평가전에서 요미우리를 5-1로 눌렀다.

일본 야구의 아이콘이자 MLB 현역 최고 스타인 오타니는 1번 지명타자로 선발 출전해 2타수 1안타 1볼넷 2타점을 올렸다.

오타니가 '일본 야구의 심장' 도쿄돔에서 홈런을 때린 건,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호주와 조별리그 경기가 열린 2023년 3월13일 이후 2년 만이다.

그 대회에서 일본을 정상으로 이끈 오타니는 '일본 야구의 신'이 됐고, 도쿄돔은

요미우리와의 평가전서 투런포 WBC 이후 2년 만에 찾아 축포 18-19일 개막전 홈런 '정조준' 다저스 1차전 선발 야마모토 '신전'으로 승격했다.

그리고 MLB를 대표하는 스타군단 다저스는 오타니의 '신전'에서 18일과 19일 이틀 동안 시카고 컵스와 2025 MLB 정규시즌 개막 2연전을 치른다.

2년 만에 찾은 도쿄돔에서 일본 팬에게 시원한 홈런포를 선사한 오타니는 개막 2연전에서도 홈런을 정조준한다.

도쿄시리즈에 출격하는 일본 선수는 오타니만 있는 게 아니다.

다저스에서는 야마모토 요시노부, 사사키 로키가 선발 마운드를 책임지고, 컵스에서도 왼손 투수 이마나가 쇼타와 간판 타자 스즈키 세이야가 출격한다.

도쿄시리즈에 출전하는 5명의 일본 선수 가운데 스즈키를 제외한 4명은 2023 WBC에서 일본의 전승 우승을 이끈 주역들이다.

다저스는 야마모토를 18일 1차전, 사사키를 19일 2차전 선발 투수로 내보낼 예정이다.

다저스 김해성은 도쿄시리즈 엔트리 합류를 노렸으나 마이너리그에서 시즌 개막을 맞이하게 돼 이번 도쿄행 명단에서 제외됐다.

컵스는 이마나가가 1차전 선발로 등판해 야마모토와 자존심을 건 대결을 펼친다.

야마모토는 지난해 다저스와 12년 총액 3억2500만 달러(약 4724억 원)의 역대 투수 최고 보장액 계약을 체결한 선수다.

그러나 정규시즌에서는 부상 여파로 18경기 출전에 7승 2패, 평균자책점 3.00으로 기대에 못 미쳤다.

이마나가 역시 지난해 컵스와 계약해 빅리그 무대를 밟았다.

계약 총액은 4년 5300만 달러(770억 원)로 야마모토에게 크게 못 미쳤으나 이마나가는 29경기에 등판해 15승 3패, 평균자책점 2.91로 컵스의 에이스로 활약하며 올스타 선정, 신인상 투표 4위, 사이영상 투표 5위 등 야마모토보다 훨씬 깊은 발자국을 남겼다.

2차전 선발로 출격하는 사사키는 두 차

레 시범 경기 등판에서 최고 시속 160km 강속구를 앞세워 3이닝 무실점과 4이닝 무실점 등 함께 7이닝 무실점으로 강한 인상을 남겼다.

이에 맞서는 컵스에서는 왼손 투수 저스틴 스틸이 등판해 오타니를 비롯한 다저스의 '왼손 타자'를 상대한다.

스티의 지난 시즌 성적은 24경기 5승 5패, 평균자책점 3.07이다.

다저스와 컵스의 마지막 개막전은 196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다저스 돈 드라이스테일이 선발 등판해 9이닝 1실점 완투로 5-1로 승리를 이끌었고, 다저스는 그해 월드시리즈 우승을 차지했다.

지난해에 이어 2연속 월드시리즈 우승 트로피에 도전하는 다저스는 올해 개막전에서도 '62년 전 기억'을 되살리고자 한다.

도쿄돔에서 MLB 개막전이 열리는 건 이번이 6번째다.

컵스는 2000년 도쿄돔에서 개막전을 치른 경험이 있고, 다저스는 처음이다.

MLB 구단이 일제히 경기를 펼치는 본토 정식 개막전은 28일이다.

스카이데일리·연합뉴스

오현규 물오른 골감각 '화끈' 대표팀 합류 앞두고 10호 골

팀 헝크 2-1 승리 견인

벨기에 프로축구 헝크의 오현규가 흥명보호 소집을 앞두고 시즌 10호 골을 신고했다.

오현규는 16일(한국시간) 벨기에 헝크의 세계카 아레나에서 열린 2024-2025 주필리리그 30라운드 홈 경기에 선발 출전해 위니옹 생질루아즈를 상대로 헝크의 2-1 승리를 결정짓는 골을 터뜨렸다.

오현규는 헝크가 1-0으로 앞선 후반 38분 역습 상황에서 노아 아데데지스틴 버그가 왼쪽에서 넘겨준 킥백을 오른발 논스톱 슈팅으로 마무리해 득점했다.

후반 44분 생질루아즈가 추격골을 넣어 경기가 헝크의 2-1 승리로 끝나면서 오현규의 득점은 결승골이 됐다.

29라운드 덴더르와의 경기에서 페널티킥 결승골을 넣은 오현규는 2경기 연속골을 기록했다.

헝스트링 부상으로 28라운드에 결장하면서 잠깐 우려의 시선을 받았던 오현규는 이후 빠르게 그라운드로 복귀해 보란 듯 물오른 골 감각을 과시했다.



오현규(가운데)가 동료들과 득점 후 기뻐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오현규는 이날 정규리그 7호(2도움) 골이자 공식전 10호(2도움-벨기에컵 3골 포함) 골을 신고했다.

득점 행진을 이어가고 팀에 승리도 안긴 오현규는 귀국해 흥명보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에 합류, 2026 북중미월드컵 3차 예선 2경기가 치러지는 3월 A매치를 준비한다. 오현규는 유럽과 스트라이커 중에서 소속팀의 핵심 자원으로 활약하는 거의 유일한 선수다.

홀란, 최소 경기 공격포인트 100개 新... 괴물 맞네

잉글랜드 프로 축구 프리미어리그(EPL) 맨체스터 시티(맨시티)의 '괴물 공격자' 엘링 홀란(24살)이 EPL 역대 최소 경기 '공격포인트 100개' 달성의 신기원을 열었다.

홀란은 16일(한국시간) 영국 맨체스터의 에티하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브라이턴 앤드 호브 앨비언과의 2024-2025 EPL 29라운드 홈 경기에서 11분 페널티킥으로 선제골을 터뜨렸다.

이번 시즌 정규리그 21골째를 작성한 홀란은 득점 선두 무함마드 살라흐(리버풀 27골)를 6골 차로 추월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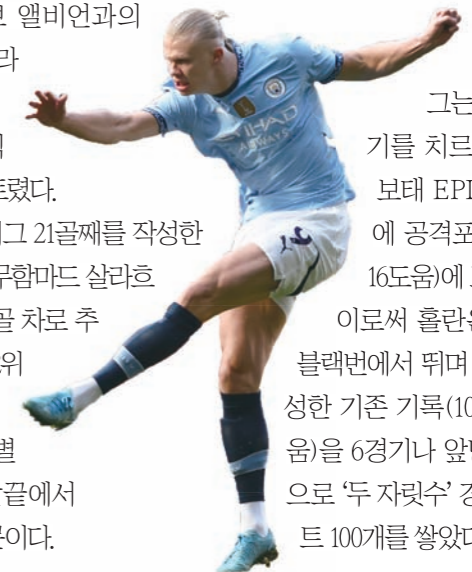
이날 득점이 특별한 것은 홀란의 발끝에서 완성된 신기록 때문이다.

2022년 5월 보루시아 도르트문트(독일)를 떠나 맨시티 유니폼으로 갈아입은 홀란은 EPL 94경기 출전 만에 84골 16도움을 작성, 역대 EPL 최소 경기 '공격포인트 100개' 달성에 성공했다.

홀란은 EPL 첫 시즌인 2022-2023시즌 35경기에서 36골 8도움을 기록했고, 두 번째 시즌인 2023-2024시즌에는 31경기 동안 27골 5도움을 작성했다.

그는 이번 시즌 28경기 치르며 21골 3도움을 보태 EPL 통산 94경기 만에 공격포인트 100개(84골 16도움)에 도달했다.

이로써 홀란은 열린 시어러블랙에서 뛰며 1994-1995시즌 작성한 기존 기록(100경기 79골 21도움)을 6경기나 앞당기며 역대 처음으로 '두 자릿수' 경기만에 공격포인트 100개를 쌓았다.



*in*hancer Plus™

관절영양제의 혁명

인한서 플러스

글루코사민 + 콘드로이틴 + MSM + 브로멜라인 + 레시틴

오프라인 전용

온라인 전용

관절 관리는 치료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